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15 May 2006 (morning)

Lundi 15 mai 2006 (matin)

Lunes 15 de mayo de 2006 (mañana)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 상품인도서 ◇

우체국쇼핑(www.epost.go.kr)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용약관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 반품, 교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청약철회 안내

- 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대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나. 단, 상품을 배송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하실 수 없습니다.
 - 1) 소비자의 과실로 상품이 훼손 또는 멀실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제외)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다.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방법

- 가. 전화요청 : 우체국콜센터 1588-1300
- 나. 인터넷이용 : www.epost.go.kr내의 우체국쇼핑>주문배송조회>반품신청
- 다. 청약을 철회하신 소비자는 상품대금을 반환 받으신 후 상품을 온전하게 반품하셔야 합니다. (반품사유에 따라 반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환불안내

- 가. 환불은 반품여부를 확인 후 3일 이내에 결제대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 나.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하신 경우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 결제대금이 청구되지 않게 합니다.
- 다. 온라인 송금, 계좌이체를 하신 경우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온라인 송금으로 환불 해 드립니다.

4. 청약철회통지서(양식)

----- 첨부 ----

성명		주소	
연락처		상품명/수량	
주문일시		결제방법	
환불계좌 (온라인입금시)		청회일자	
청회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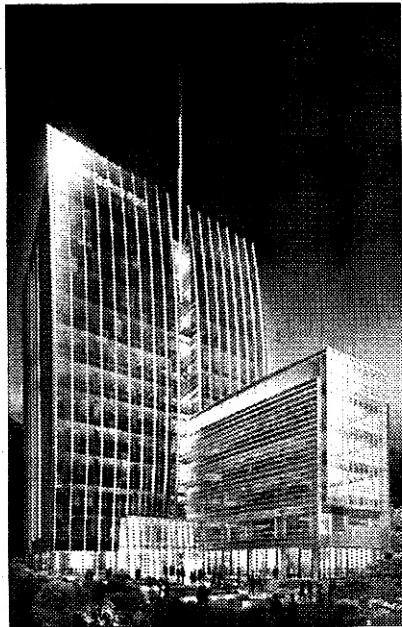
본문 B

강북에 '테크노폴리스' 들어선다

나노기술(NT)과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등 첨단 분야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복합 산업기술단지가 서울 강북지역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산업대, 한국전력 연수원, 원자력의학원이 있는 노원구 공릉동 172 일대 5만평에 2014년까지 4,951억원을 투입, 첨단산업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키로 하고 25일 기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 테크노폴리스(조감도)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산·학·연 연계를 통해 ▲ 연구 개발된 소자를 실생활용품과 제품으로 산업화 ▲ 나노 및 IT 분



노원구 공릉동 일대 5만평에 … 25일 기공

산학연 연계로 IT·NT·BT 등 신기술 개발

年2조 부가가치 창출 미래산업의 메카로

야 부품과 제조장비 국산화 ▲ 전력 및 바이오 분야 첨단장비연구·개발 ▲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NIT(나노+IT) 연합대학 프로그램(NITU) 운영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단지 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초기 인프라 구축에 600억원을 투자하고 서울산업대와 한국전력 등은 5만여평의 부지를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2007년 8월까지 서울산업대 안에 연구와 생산, 교육을 담당하는 테크노폴리스 본부동인 '스마트 하우스'가 설립된다.

지하 1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9,250평 규모의 스마트하우스에는 첨단 제조장비의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실습실인 클린룸 'NIT Fab' (800평 규모)이 설치되는데 반도체, LCD 장비업체 등 10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클린룸은 구축비용이 300억~400억원 소요되며 연간 운영비만 50억원에 이른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대가 유일하게 100평 규모의 클린룸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 연수원과 원자력의학원 땅에는 기업연구동이 건립돼 전력, 바이오산업 분야의 국내외 기업연구소들이 입주하게 된다.

서울 테크노폴리스 사업에는 서울산업대 등 서

울 북부지
역 14개
대학과 원
자력의학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품
질관리소, 한국기계연구원 등 연구기관, 한국전력
삼성전자 삼성SDS 등 대기업, 주성엔지니어링 신
성ENG ABC상사 DMS 등 중견 장비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참여 대학과 기업, 연구소는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별해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졸업후 취업을 보장하는 NITU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대학간에는 상호 학점 교류가 이뤄진다. 내년 3월부터 대학 4학년생 30~50명 정도를 선발하고 제도가 정착된 후에는 3학년생을 뽑을 예정이다.

윤진식 서울산업대 총장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이 고가의 연구시설과 기자재를 공유함으로써 투자를 효율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이 끝나는 2014년이면 간접 매출을 포함, 연간 2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연 4,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첨단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본문 C

[1]

아침도 먹지 못하고 길을 재촉하던 끝에 점심때가 다 되어 고개 마루에 올라선 일행은
식당표지판이 나타나자마자 더 볼 것도 없이 차를 멈췄다. ‘우리 OOO 막국수 가든은 케이블
티비방송에서 맛자랑 맛자랑으로 전국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식당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OO 산에서 나는 전국최고의 산채와 약수로써 보다 더 맛있는 반찬과 음식을 맛보여 드릴
것입니다.’ 식당앞에 걸린 대형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였다.

[2]

“뭘 그렇게 오래 쳐다봐?”
일행 중에 가장 연장자인 김이 나를 툭 치면서 물었다.
“글쎄,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쏭달쏭해서요.”
“모르는 게 있으면 주인한테 물어보라구. 핵심은 잘한다는 거 아니겠어? 어. 배고프다.”

[3]

식당 안에 들어서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개를 박고 국밥을 떠 넣고 있는 광경이 들어왔다. 일행이
자리에 앉자마자 착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자가 푸른 빛이 감도는 묵직한 사기컵과 물병을 가져
왔다.“주문하세요”

그런데 다섯 명의 취향이 각각인 게 문제였다. 비빔밥, 갈비탕, 육개장, 막국수, 된장찌개.

“너무 복잡하군. 종류를 좀 줄이죠.”

내가 미안해 해야 하는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서기는 하지만 내가 제안을 하자 일행 중 한 사람이
반박을 했다.

“공산당 (28: 전당대회)도 아닌데 왜 그래. 우린 다 배고프다고. 각자 자기사 맛있어 하는 걸 먹을
권리는 있어.”

그녀는 무표정하게 우리의 (29: 아옹다옹)을 잠시 지켜보는가 싶더니 “막국수는 안돼요.” 하고
간단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막국수집에서 막국수가 안되다니.”

“아저씨, 지금은 가을이에요. 가을에 막국수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녀는 막국수라면 전국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김을 가르치려 들었다.
그러면서 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가 고개를 돌려 바깥을 살피고 있었다. 성미 급한 김이 발끈했다.

“그럼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거 아냐. 막국수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는 막국수가 안된다면 붕어
없는 붕어빵이야?”

“호두 없는 호두과자지. 자자. 배고픈데 그만하고 통일!”

“난 통일 싫어.”

“이 사람이 (30: 국시)에 (31: 저축)되는 발언을 함부로 하고 있네. 육개장?”

“난 느끼해서 육개장 싫어.”

“육개장은 안 느끼해요.”

그녀는 다시 사흘 내리 아침마다 육개장만 먹어온 사람을 가르치려 들었다.

“그럼 된장찌개가 셋, 육개장 둘, 됐지?”

다른 말이 더 나오지 않게 한 사람이 입을 막았다. 그녀는 주문을 받더니 주방을 향해 된장 세 개,
육개장 두울 하고 소리를 치고는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50 대의 사내에게 다가갔다. 사내는 식당
안을 빠르게 살피면서 “우린 급한데.” 하고는 발을 돌리려고 했다. 그 여자는 급한 사람은 하도 많이
봐서 신기할 것도 없다는 듯, 타의 귀감이 되는 (32: 노련한) 자세로 말을 받았다.

“금방 나와요. 아저씨, 몇분이에요?”

“네 명이야.”

“육개장 드세요. 제일 빨라요.”

“그러지.”

[4]

제기랄, 저렇게 쟈짜하게 상대해줄 줄 알았으면 우리도 진작에 반말을 할 걸. 우리가 군시렁거리는
중에 반말 잘하는 사내가 밖을 향해 소리를 치자 바쁘다는 그의 일행이 천천히 걸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우스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우리 일행보다 먼저 바쁘다는 일행에게 음식이 간 것이다.

“아줌마! 이리 좀 와봐요!”

육개장을 싫어하는 친구가, 아줌마라는 말을 싫어할 게 틀림없는 그녀를 불러 따지기도 전에 이미 육개장이 바쁘다는 일행의 입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왜 저쪽을 먼저 주는 거야.”

그녀는 내 자리 앞에 서서 투정부리는 아이를 보듯 한심하다는 눈으로 나를 내려다 보았다. 그게 더 나를 바쁘게 만들었다.

“난 육개장 안 먹을래. 원래대로 비빔밥 먹을 거야.”

그녀는 눈을 살짝 치켜떴다.

“지금 와서 바꾸면 어떡해요?”

“왜 안된다는 거야? 먼저 주문을 어긴 사람은 당신들인데. 순서대로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냐.”

그러나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려 무어라고 짜증스럽게 소리를 치고 있었다. 그 바람에 참고 있던 사소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불거졌다.

“아줌마!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난 비빔밥 아니면 안 먹는다구!”

“아저씨, 육개장 한 그릇 값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드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건 육개장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냐구. 난 비빔밥이야. 저 사람들 육개장처럼 빨리 줘요.”

흥미롭게 나와 그녀 사이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한꺼번에 궁시렁거리기 시작했다. 난 막국수, 난 갈비탕, 난 통일.....

[5]

“시끄러워 못 살겠네. 정말. 아냐. 밥 안 팔아. 안 팔아요.”

걸레를 (예: _____) 돌아서는 그녀의 손을 누가 잡았던가. 나였나, 김이었나.

“아줌마, 식당 허가라는 건 아줌마 맘대로 음식을 팔고 말고 하라고 내준 게 아니에요. 식당은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거지, 일단 문을 연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내 말 들어요. 내가 군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이 식당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나도 (33: _____)져요. 그래도 아줌마가 우리에게 밥을 안 판다면 나는 분명히 신고를 할 거예요.”

그 여인의 입가에 빠른 기차처럼 경련이 지나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웃음이 감돌았다.

“군청에서 나오셨어요?”

나는 (34: _____)해서 허기진 표정의 (35: _____) 일행과 얼굴을 마주보았다.

“아닙니다.”

“나오셨으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 알죠. 잘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원하시는 메뉴가 뭐였죠? 된장찌개 하나, 육개장 하나, 비빔밥....”

“아니라니까요!”

그녀는 우리가 틀림없이 암행감찰을 나온 군청 소속 직원이거나 그 비슷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우겼다. 그렇게 (36: _____) 따질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다고. 그리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번개처럼 가져다주었다.

-----<<재미나는 인생>> 성석제 소설 1997

본문 D

김순웅 K 옥션 대표 인터뷰

시사저널 2005. 11.22

문화

“작가의 최고 작품만 취급한다”

김순웅 K 옥션 대표 인터뷰 / “해외 작품 본격적으로 소개하겠다”

K 옥션의 첫 경매가 있던 지난 11월9일 이후, 경매사로 나선 김순웅 대표(52)는 의미 있는 몇 가지 기록을 세웠다. 우선 박수근의 <나무와 사람들>(1965년작)이 국내 경매 사상 최고액인 7억1천만원에 낙찰되었다. 그전 최고 기록은 박수근의 <노상>으로 5억2천만원이었다. 출품작의 74%가 낙찰되었는데, 이 또한 국내 경매 사상 최고의 낙찰률이다.

김순웅 대표의 이력은 독특하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 잘 나가는 은행가였던 그가 5년 전 벤처 기업이나 다름없던 미술품 경매 회사로 자리를 옮겼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그는 국내 최초의 미술품 경매 회사인 서울옥션에서 지난해 10월까지 사장을 지냈고, 지난 9월부터 K 옥션 설립을 주도했다. K 옥션은 갤러리 현대·학고재·하나은행이 공동 출자한 회사다. 11월 10일 K 옥션 대표실에서 그를 만났다.

국내 경매 시장 최고가가 간신되었다.
작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부터 감이 왔다. 출품작이 비싸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좋은 작품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위작 사건이 떠들썩할 때 일수록 고객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왜 가짜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안목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가 이름만 보고, 싼 것만 찾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검찰이 올해 초 서울옥션에서 판매된 이중섭 작품을 위작이라고 판명했다. 경매 시장에서마저 위작이 걸리지지 않는다면 미술 시장의 성역이 무너진 것과 같은데. 워낙 가짜가 정교하기 때문에 소더비 같은 외국 경매 회사에서도 가끔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도 그 작품이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공개될

수 있었고, 손님한테 피해도 가지 않았다. 화랑에서 구입했다면 확대되지도 않았을 거고 피해도 손님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K 옥션은 출품작을 어떻게 검증하나?

서울옥션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한테 복수로 보여주고, 한 명만 이의를 제기해도 경매에 올리지 않는다. 다만 소장 경로가 확인된 작품은 감정이 필요 없다. 어찌 보면 이중섭 파문도 불가항력이었을 것이다. 아들한테서 나왔는데 믿을 수밖에 없다.

소더비·크리스티는 엑스퍼트 명단을 공개한다. 감정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

못한다. 소더비·크리스티의 엑스퍼트들은 감정가가 아니라 출품작을 선별해 도록 만들고 경매를 총괄하는 사람들이다. 거기서도 감정은 외부에 맡긴다. 피카소 보는 사람 따로, 인상파 감정가 따로 이런 식인데, 그 많은 감정 인력을 내부에 들 수는 없다.

화랑에 비해 경매 시장의 장점을 듣다면?

국내 미술 시장이 침체한 가장 큰 이유가 불신 때문이다. 가격도, 진위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은 미술품 유통이 화랑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보면 화랑과 경매 회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경매가 활성화해야 미술 시장이 발전한다.

K 옥션의 성격을 어떻게 만들 생각인가?

첫째, 그 작가의 최고 작품만 취급하겠다. 둘째, 해외 작품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겠다. 지난해 우리 나라 사람들이 9백 50억원 정도의 외국 작품을 샀는데, 한국 전체 미술 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한테 선택 할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작가들이 해외 작가와 경쟁해야 국내 미술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그림을 잘 사는 방법이 있나?

현대의 미술은 예술이자 상품이다. 관심있으면 많이 보고 직접 사봐야 한다. 그래야 그 작가에 대해 실감 나게 알 수 있으며, 한두 작가 작품을 사다 보면 관심

영역이 커지면서 다른 세계가 열린다. 구체적으로 조언하자면, 독창적인 작품에 주목하고, 소장 기록을 살펴보며, 보존 상태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희소성이 높은 작품이나 젊은 작가의 작품을 사는 것도 좋다.

■
안철홍 기자 epigon@sisapress.com



김순웅 K 옥션 대표

“**좋은 그림을 사려면 독창적인 작품에 주목하고, 소장 기록을 살펴보며 보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희소성이 높거나 젊은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